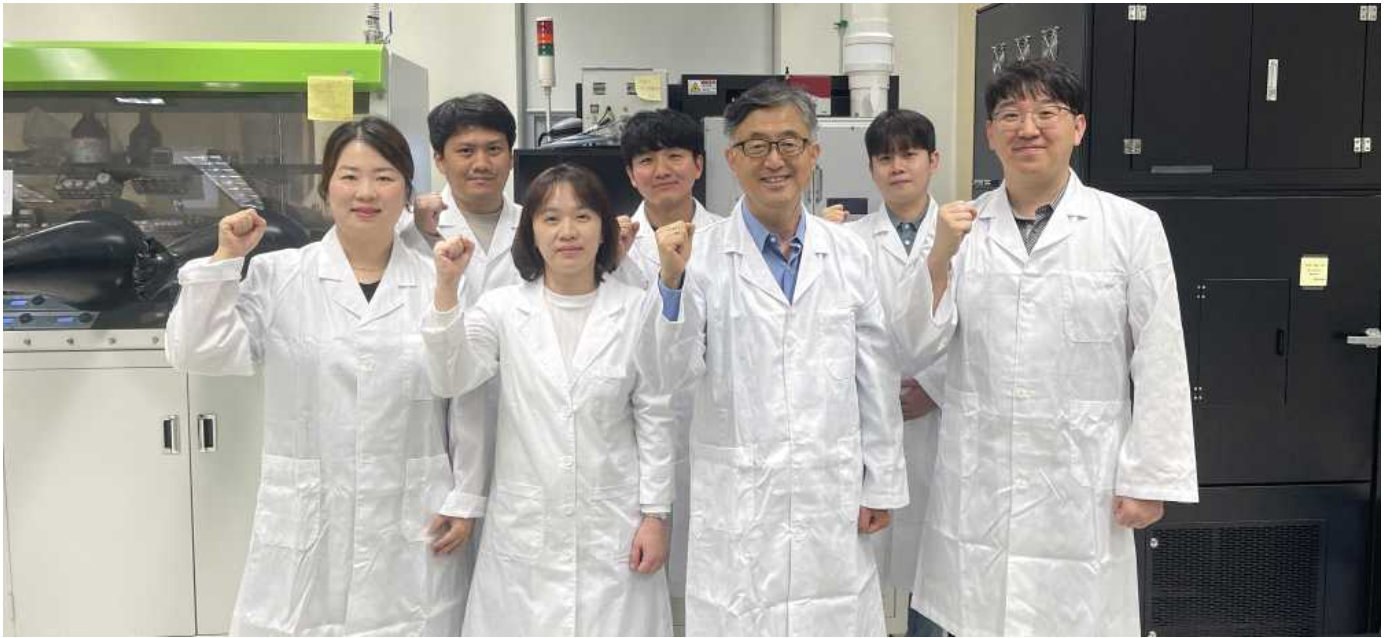


GIST 교원 창업기업 (주)리셀, 중기부 딥테크 팁스(TIPS) 선정... 15억원 지원

- 이광희 교수 창업기업 (주)리셀,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필름 양산화 개발... 유연 태양 전지 상용화 앞당길 것으로 기대



- ▲ (주)리셀의 연구진: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홍규 책임연구원, 이광희 교수, 정송이 연구원, 양귀은 행정원(리셀), 장준호 박사후연구원, 임동하 연구원(리셀), 정현석 연구원(리셀)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교원 창업기업인 (주)리셀이 딥테크* 팁스** (친환경-에너지분야)에 최종 선정되어 최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딥테크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가 선정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 및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 딥테크(Deep-Tech): 공학이나 과학과 같이 심도 있는 R&D(Research and Development / 연구개발)를 기반으로 1~2개 정도의 특정한 기술을 좁고 깊게 파는 경향의 사업 또는 산업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미래 유망 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이번 딥테크 팁스에 선정된 (주)리셀은 GIST 신소재공학부 이광희 교수가 지난 2022년 11월에 창업한 회사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 및 모듈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저조도용, 건물일체형, 모빌리티 일체형, 영농형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 가능한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해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딥테크 팁스'는 기존 팁스에 비해 지원금 규모가 3배 정도 많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력·사업성·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 평가 기준이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다. (주)리셀은 3년간(2023년~2026년) 약 15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주)리셀은 롤투롤 제조 기술을 고도화해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필름을 국내 최초로 양산할 계획이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가 적용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 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주)리셀이 개발하고자 하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필름은 초경량, 투명성, 유연성 등을 기반으로 유연한 필름 형태로 제작 가능하며 시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 응용 분야별 유/무기 하이브리드 필름형 태양전지 모듈 대표 사진

이광희 (주)리셀 대표는 “이번 딥테크 팁스 선정을 계기로 태양전지 응용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필름형 유연 태양전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리셀의 독자적인 태양전지 필름 양산화 기술이 스마트 가전 및 IoT 센서, 건물, 차량 선루프,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요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제조 R&D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